

정부 보건시책 방향(3)



박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5. 질병예방사업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예방접종은 질병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모에게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수직감염이 아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B형 간염의 예방을 위해서 작년부터 간염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선천성 풍진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15세가 되는 여아들에게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학동기, 아동의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을 위해서 4~6세에 MMR 재접종을 예방접종 기본 일정표에 포함시킬 것이다. 예방접종은 효능이 입증된 백신으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안전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일본 뇌염은 향후 10년간의 환자발생 수준을 감안할 때 유행지역에서 해제할 시점이 되었으며 발생가능한 뇌염환자 수보다 부작용환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94년에 시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부터 접종방침을 바꾸었다. 3세때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4세때 1회 접종하는 것이 기본접종이고 그 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15세가 될 때까지 재접종을 하는 것이 바뀐 일정이 된다.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많은 기존의 전세포사백신제재를 비용이 더 들어도 안전한 Vi제재로 교환하는 사업을 몇년간 진행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적은 Vi제재만을 사용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시하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뇌혈관질환의 1차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정상 혈압의 유지와 고혈압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체계적인 고혈압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관리사업을 금년부터 정부보건사업으로 승격하여 군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보건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고혈압 관리사업에서 강조할 부분은 보건교육을 통한 위험요인의 교정과 치료 순응도의 증진이다.

일차적으로 일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건인력 훈련을 실시해서 절반이상의 군보건소에서 체계적인 고혈압 관리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도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비과학적이고 무분

별한 건강검진은 노력을 낭비하고 의료비만 앙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과학 기술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집단별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표준 건강검진항목을 개발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내역을 조정하고 민간에도 권장할 것이다.

6. 불구방지 및 조기 재활사업

정신질환자들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와 병행해서 단순수용에 그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 실질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훈련과 적응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아 자폐증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센터를 국립서울정신병원 내에 설



뇌혈관 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정상혈압의 유지와
고혈압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고혈압 관리사업도
실시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령의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금연
및 절주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건강증진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하고 혈우병환자, 골수이식 대상자, 무의탁 나장애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과학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전산정보체계를 도입하고 감염발생정보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염병의 발생과 예방을 위한 정보가 신속하게 수집, 분석, 배포될 수 있는 기본구조를 확충할 것이다. 국내발생이 드문 희귀 감염성질환은 진단도 힘이 들 뿐 아니라 치료약을 구하기 어려워져 치료가 늦어지는 일이 많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희귀 의약품』을 비축해서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약품을 공급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립보건원내에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며 국립의료원을 『치료중심병원』으로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와 약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7. 맺는 말

국민건강증진법령의 제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습관 즉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및 절주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건강증진목표를 설정하여 국가발전수준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국가만의 사업은 아니며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단체 및 보건의료관련단체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범국민적인 건강증진운동으로 함께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보건요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